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 학습 양상 탐색*

박진아¹, 윤기준²

《 요 약 》

본 연구는 체육고등학교 소속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A체육고등학교 소속 학생선수(4명) 및 교사(5명)와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구성주의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통해 도출된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는 대회 출전보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선수는 A체육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 부분 만족하지 않았으며 개별적인 학습을 병행하고 있었다. 셋째,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성으로 인한 학생선수 학습 지원 측면에서 어려움과 제한점이 있었다. 세 가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고등학교의 성격 인식 전환과 효과적인 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학업-운동 병행, 학습권, 엘리트선수, 전문체육, 학교운동부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의 지원(2023-0013)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논문에서 활용된 일부 내용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에서 발췌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1. 인천대학교 대학원생, jinaaa9876@gmail.com (주저자)
2. 인천대학교 교수, k.yoon@inu.ac.kr(교신저자)

I. 서론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에 대한 대중의 본격적인 관심이 시작된 것은 21세기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수영 국가대표로 발탁된 중학생 장희진이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 태릉선수촌 입촌을 미루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이 시작이었다. 여론은 뜨거웠으며 이 일로 인해 다양한 이분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수영연맹(국가대표 자격 1년 박탈하겠다) 대 서울시교육청(다른 학생선수 포함 전원 퇴촌시키겠다), 국위선양(국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정신은 필요하다) 대 자아실현(단지 운동을 좋아해서 시작한 청소년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본분은 경기력 향상이다) 대 학업(어디까지나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이 우선이다)이다. 이와 같은 구도는 명왕성(2020)이 제시한 ‘학습권 보장’과 ‘운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담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에 대한 관심 및 효과적인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우선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또는 학습권 보장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노력(류태호, 이주옥, 2004), 학습권이라는 개념을 헌법상의 요청 및 보호자의 의무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김동현, 윤양진, 2010), ‘학습권 보장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 및 개선 방안 탐색(이용식 등, 2016), ‘운동권 보장’이라는 담론으로 탐색한 학습권 보장 실태(최윤석, 박재우, 2024)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 양상을 탐색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수업에 참여하는 비율과 성실도가 낮아진다는 것과 경기력 향상과 비교했을 때 학업의 중요성을 매우 낮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대표적이다(권형일, 구태연, 류겨레, 2018). 아쉽게도 이와 같은 학생선수의 자세 및 태도는 교사 또는 일반학생의 방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원길, 임수원, 2003).

다행인 점은 그동안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한 최저학력제, 주말리그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주말리그제는 학생선수의 수업 참여 필요성 인식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선혁규, 백종수, 2019). 대회 출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e-school이 다양한 외부 변수에 의해 정책이 정교화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김은영, 임한얼, 20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은 스포츠교육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연구 영역이다. 그러나 학생선수 학업-운동 병행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편중성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연구 참여자로 설정되어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체육고등학교 소속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체육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예: 전문교과)을 운영한다. 학생선수로서 전교생이 구성된 점,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점, 기초 종목 위주로 육성되어 차별화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는 주로 학생선수 학습-운동 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는 어려움을 탐색하는데 집중하였다. 달리 말하면 - 첫 번째 제한점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 기초학습이 부족한 '현황'과 그 '이유'를 밝히는 데 집중한 반면 학생선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학생선수의 기초학습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e-school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업-운동 병행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는 학생선수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임한얼, 김은영, 윤기준, 2023).

이와 같은 측면에서 체육고등학교 소속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 탐색 관련 연구로는 다음의 두 편이 대표적이다. 이준길과 김병선(2022)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영어 교과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서는 선행 학습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개별 교과(영어)만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윤기준과 전세명(2020)은 학업-운동 병행에 대한 관리자 및 교사의 관심이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도출했으나 마찬가지로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달리 말하면 선행연구에서는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학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과 방법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수한 맥락이 학업의 내용과 방법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세부 영역을 탐색하지 않았다. 이에

1) 학습 양상(aspect of learning)은 배움의 과정에 관여되는 내용, 방법, 평가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까지 고려하면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을 고찰하지 않았다는 점, 학습(권)이 주로 운동과의 병행에서 이해되었던 점,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수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학습 양상을 '경기력 향상이 핵심으로 이해되는 학교 맥락에서 학업을 체계적으로 이어나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제목에 '체육고등학교'라는 제한된 학교 유형이 제시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일반고등학교와 다른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체육고등학교 내에서의 학생선수 학습 양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목적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수도권에 속한 A체육고등학교 소속 학생선수(4명)와 교사(5명)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²⁾. 유목적적 표집법에서 활용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 선정 과정에서는 평소 학업-운동 병행에 관심이 많은 학생 우선 접촉,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3학년 학생으로 제한, 각기 다른 운동(부)의 특성 반영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반영하여 총 4명(남 2, 여 2)을 선정하였다.

둘째, 교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교과별로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기 다른 교과 교사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초 4명의 교과 교사와 접촉하였으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에 관심을 보인 교사 1인이 추가되어 총 5명의 교사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구분	이니셜	성별	종목 또는 지도 교과
학생선수	J	남	수영
	S	여	핀수영
	C	여	사격
	K	남	근대 5종
교사	P	여	과학
	L	여	수학
	H	여	영어
	V	남	체육
	M	여	국어

2)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진로교사, 운동부 담당 지도자(담당 체육교사 및 코치)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학생선수와 교과 교사만의 인식만을 살펴본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의 모든 자료 수집은 제1저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 배경’,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학습 내용 및 방법’, ‘운동부 생활’, ‘학습의 효과 및 제한점 인식 방법’ 등의 영역과 질문을 구성하였다. 학생선수와와의 심층면담은 학교 일과 및 훈련 시간을 고려하여 주로 19-22시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일종인 ZOOM을 활용하였다. 학생선수와와의 면담은 총 8회(개인별 2회 * 4명) 진행되었으며, 각 면담에는 40-60분이 소요되었다. 총 5회(개인별 1회)에 걸친 교사와의 심층면담은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면담에는 40-50분이 소요되었다. 교사와의 면담은 ‘현재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인식’, ‘일반고등학교와 다른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 학습 내용, 방법, 제한점’, ‘효율적인 학생선수 학습 지원 방안’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ZOOM의 녹음 기능과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음성 파일은 온라인 기반 음성 기록 프로그램인 클로바노트를 통해 전사(transcription)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Charmaz(2014)의 구성주의 근거이론 기반 코딩기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코드 및 범주를 생성하였다. 첫째, 제1저자는 전사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문제(예: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어떻게 학습하는가) 및 자료수집 과정에서 포착한 잠재적 중심현상(예: 대회 출전보다 내신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과 관련된 100여 개의 초기코드(initial code)를 생성하였다. 둘째, 의미가 유사하거나 상위 범주를 생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초기코드를 엮어서 40여 개의 초점코드(focused code)(예: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를 도출하였다. 셋째, 두 번째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소범주(sub-theme)와 범주(아래 세 가지 연구결과에 해당)를 생성하였다(표 2 참조). 결과적으로 본 자료 분석은 총 네 단계(초기코드 - 초점코드 - 소범주 - 범주)로 구성되었다.

〈표 2〉 귀납적 범주 분석 예시

초기코드	초점코드	소범주
과목수가 다양해지길 희망하고 있음	수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	학생선수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실생활에 필요한 과목 개설이 필요함		
대학 입시를 위한 수준 조절이 필요함		

초기코드	초점코드	소범주
참여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음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불만족
나의 흥미와 수준에 맞지 않아서 효과를 느끼지 못함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과목이 마음에 들지 않음		
훈련으로 인한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III. 연구 결과

1. 학습의 중요성 인식: 중요하게 인식되고 실천되는 내신 관리

연구에 참여한 학생선수는 체육고등학교 소속임에도 경기실적보다 내신 관리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실업팀 입단보다 대학 진학을 우선시하는 뚜렷한 경향이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엄청 중요한 시험이 아니면 시험을 먼저 봐요. 시험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중략)
시험은 기록이 남잖아요. 어쨌든 그걸로 대학도 가고 나중에 계속 기록이 남는데 시험은 이거 하나 안 뚫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엄마는 저보다 더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S 학생)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3학년이고 이스라엘 시험 때문에 마지막 시험이었어 가 지고 시험이랑 겹친 게 저는 시험 안 치고 시험을 나갔거든요. 원래 같으면은 시험을 치고 시험을 안 나가요. (중략) 저희 부모님도 올해 같은 중요한 일 아니면 웬만하면 다 시험 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시험은 또 계속 있으니까 제가 떨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험은 1년에 네 번 1학기에 두 번씩이니까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J 학생)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신 성적 관리는 주로 두 가지로 확인되었다. 첫째, 국어, 영어, 수학 등 이수단위가 높은 교과목에서의 높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었다. 학생선수는 수업 시간 외의 교과교사와의 접촉, A체육고등학교에서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외부 강의(예: EBS, e-school)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 수준을 끌어올렸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이제 이해 안 될 때는 교무실 찾아가서 쌤들한테 여쭙보거나 아니면 EBS 강의 같은 거를 조금 더 들어가면서 하고 있어요.(K 학생)

2학년 때 제가 수학이 좀 부족한 편이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제가 수학을 항상 3등급 정도를 맞았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수학 방과후를 계속 들었었는데 그다음 시험 때 1등급을 이제 1년 동안 맞아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K 학생)

둘째, 학교 임원 활동 등과 같은 적극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통해 내신 성적을 관리하고 있었다. S학생은 입학사정관제 등과 같은 입학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 전교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저는 지금 전교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중략) 전교 부회장 활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은 모르겠고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S 학생)

2. 학습 수요 및 방법: 학생선수의 불만족 그리고 자체 노력

연구결과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생선수는 학업성취도 향상과 내신 성적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학업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선수는 교사와 달리(아래 연구결과 3에서 제시) 대체적으로 A체육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폭넓은 교과 학습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C학생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생선수의 불투명한 미래를 고려했을 때 보다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약간 저희 학교는 공부를 딱 그 과목만 알려주니까 배우는 게 많이 그냥 진짜 공부밖에 없던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학교로 그러면 컴퓨터도 배우고 다른 과목들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배워보고 싶고, 사회에서 더 필요한 과목들이 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운동으로 안 났을 경우에도 사회로 나갔을 때 애들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C 학생)

방과후학교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 영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수업 개설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내신 성적과 수학능력시험을 모두 준비하고 있는 K학생은 특정 교과 기반의 프로그램보다 수학능력시험을 종합적인 형태로 준비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고 있었다.

과목이 뭐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사회과목도 한 번 들어봤고 역사도 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사회랑 역사는 이해하고 암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중략)... 과목이 개설된다면 모의고사 준비반 정도? 학교에서 저희는 모의고사를 안 봐가지고 이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K 학생)

이와 같은 여건으로 인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선수들은 개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S학생의 경우 체육고등학교 소속 학생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투자하는 금액과 시간이 적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성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사교육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는 학원을 국어랑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 수학은 과외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수학 과외는 제가 중1 때부터 했으니까 한 5-6년 했고 영어랑 국어는 올해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중략)... 약간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계속 수학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니까 계속하는 것 같고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다니다 보니까 필요성을 사실 잘 못 느꼈었는데 이제 시험을 계속 보면 볼수록 조금씩 떨어지니까 다녀야겠다 싶어서 다니게 됐는데.(S 학생)

친구들로부터 받는 도움 역시 학생의 자체적인 노력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1에서 제시된 교과교사에 대한 질문과 달리 J학생은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형태로 내신 성적을 관리하고 있었다.

저는 오로지 단기 기억으로 승부를 보는 편이라서 딱 시험 일주일 전부터 애들한테 도움받아서 시험 범위를 알아내고 그거 좀 애들한테 강의 좀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J 학생)

3. 학습의 어려움 및 제한점: 체육고등학교 맥락에서 비롯된 특징

학생선수와 달리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A체육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질

과 양 모두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취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 편성 원리,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차별화된 학교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여기는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선수로서의 그게 일단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일반고에서 배우는 국영수사과 이런 거는 거의 최소 단위거든요...(중략)... 내가 공부에 학업에 일반고에서 말하는 학업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맞보고 싶다 했을 때 체육고등학교는 적절한 학교는 아니예요.(P 교사)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가 너무 지금 다양해서요. 학습 코칭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교과 있고 그리고 애들 기초학력 관련해서도 있고 개설을 했고 또 음악으로 밴드 그리고 영어회화 또 뭐 있지 전공 선생님들이랑 또 상담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많아요.(J 교사)

(아이들에게 학습권 보장)너무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애네들은 체육고등학교니까 체육학습을 더 많이 신청한거죠...(중략) 근데 만약에 자기(학생)가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수업 같은 거를 또 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000공동교육과정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방과후 레슨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다 우리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H 교사)

그럼에도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비롯된 어려움 및 제한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은 학생선수의 효과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A체육고등학교의 요인이었다. 첫째, 학생선수 간의 지나친 기초학력 수준 편차다.

학생들의 학업 수준 차이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이 그러니까 성적 분포가 나타나고 극과 극이에요.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 그다음에 하위권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아이들은 현저히 적어서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게 항상 고민이고.(M 교사)

둘째, 다양한 종목 선수로 학급이 구성된 점이 효율적인 학습의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A체육고등학교의 경우 4-5개 종목의 선수가 한 학급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는 기간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학기 초에 형성된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들이 기복이 생기면서 수업에 못 적응하고 이제 수업에서 걸돌고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부마다 시험이 다 다르니까. 시험에 자주 가니까.(L 교사)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학년 초에 애들이 2학년 초에도 마찬가지로요. 되게 애들이 학기 초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시험을 한 번 갔다 오면 그 흐름이 딱 끊겨요. 공부를 하려던 애들도.(H 교사)

IV. 논의

3장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는 내신 관리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학습의 중요성 인식). 둘째, 학생선수는 내신 관리를 위해 개별적인 학습을 병행하고 있었다(높은 학습 수요 및 방법). 셋째, 교사들은 학생선수 간의 기초학력 수준 차이와 체육고등학교 고유의 학급 구성의 특성을 효율적인 학습의 제한점(학습의 어려움 및 제한점)으로 꼽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중심현상을 바탕으로 체육고등학교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선수 학습 지원 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한다.

1. 체육고등학교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학생선수가 대회 참여보다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한 중간 또는 기말고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력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특수 진로(예: 실업팀 입단) 또는 진학(예: 특기생 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이 학생선수의 핵심 과제로 이해되었던 것과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인 양성’이라는 체육고등학교의 설립 근거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는 교육정책 및 선수 진로 환경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학생선수 육성 철학이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었다. 일정 성적 이하의 학생선수에게 대회 출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학업능력(내신 성적)을 입시에서 검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학생선수는 - 실업팀 입단이 아니라면 - 입학과 입학 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도

학업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체육고등학교에서의 대학 진학 방안을 다르게 인식하는 교육 수요자(학생 및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육고등학교는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육성종목이 대부분이 비인기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대표 등과 같은 최우수 수준이 아니라면 운동을 그만둔 이후의 진로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학생선수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기생 전형으로 수도권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선호하며,³⁾ 이는 극소수의 사례만 성공적인 진학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윤기준 등, 2023).

이에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학업-운동 병행을 강조하는 대학의 입장과 은퇴 이후의 삶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학생선수 및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경기력 향상과 대회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되길 희망하는 절대 다수의 학생선수와 학부모는 ‘우수한 코치진’, ‘양질의 시설’,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꼽는 반면, ‘학업과 운동의 병행’에 대한 관심은 낮게 나타났다(윤기준 등, 2023).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사 운영 변화가 필수적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체육고등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관련 특수 지침이 있다. 따라서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체육고등학교를 설정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제90조에 의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설정되어 있으며, 7항에서는 체육고등학교를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는 사전적으로 ‘특별히 다름’ 또는 ‘어떤 종류 전체에 걸치지 아니하고 부분에 한정됨’으로 정의된다. 특수 문자, 특수 부대, 특수 제작된 등산화 등과 같은 표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보면 특수는 특정(specific)한 영역을 뜻하는 의미와 일반과 다르다(different)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다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체육’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⁴⁾ 체육 관련 직종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점을 감안하면 법령에서 의미하는 ‘체육인’은 매우 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체육고등학교가 ‘특별히 지정함’이라는 ‘특정’의 의미에만 기반한 방식으로 운영되면 경기력

3) 이 내용은 2023년 9월 1일에 개최된 ‘세종체육중·고등학교 설립 관련 공청회’에 참여한 수도권 체육고등학교 소속 교사의 의견이다. 특히 육상과 같은 기초종목에서 체육고등학교가 학생선수와 학부모로부터 진학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수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학생선수는 대학 진학 이후에 (힘든)운동을 그만두고 일반학생으로 전환하고, 대학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운동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4) 법령에서는 ‘체육’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우리나라에서 체육과 스포츠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쟁적인 스포츠 대회(sport event) 중의 하나인 ‘전국체육대회’를 봐도 그렇다.

항상이라는 좁은 목표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훈련으로만 진행되는 전문교과, 과도한 전문교과 편성,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일반교과와 전문교과를 통합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학사 운영을 전환하는 체육고등학교의 시도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경기인’ 양성이라는 좁은 영역에서 ‘체육인’ 또는 ‘스포츠전문인’ 양성이라는 보다 큰 영역을 목표로 하는 체육고등학교 운영이 관심을 받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기준, 전세명, 2020).

이에 체육고등학교는 학생선수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한 학교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 진로는 폭과 시간이라는 횡적 및 종적 형태의 확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선수 및 학부모의 수요는 매우 다양하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경기력 향상보다 학업 성취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아래 2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학생선수로 하여금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전문선수의 삶에 입문한 선수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은퇴한다⁵⁾. 이에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2.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 지원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모든 학생이 선수라는 점, 72단위 이상 전문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는 점, 전반적인 학교 운영의 중점이 경기력 향상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체육고등학교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 특징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 수준과 학생선수 간의 큰 학업 수준 차이를 꼽을 수 있다. 일반고등학교와 달리 체육고등학교는 소속 학생 전원이 학생선수이다. 현행 체육고등학교의 핵심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육상, 수영, 근대5종, 핀수영 등과 같은 기초종목 및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학생선수로서 지낸 학생들이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학생선수의 진학·진로 맥락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학생선수의 전반적인 낮은 학업성취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부족과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 부족을 제한점으로 제시하였

5) 학생선수 학업 관련 정책문서 및 연구(보고서)(예: 박상현, 신선운, 2017)에서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자발적 의지에 의해 운동을 그만두고 진로를 전환하는 학생선수의 숫자 역시 많을 수 있다. 이에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한 ‘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윤기준, 전세명, 2020).

이와 같은 측면에서 체육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수준 향상을 극대화하고 학습에 대한 의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체육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한 노력에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국민준과 홍애령(2024)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체육고등학교에서 중요한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는 보통 교과(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와 전문교과(학생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설계된 교과목)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따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체육고등학교에서 ‘학습’⁶⁾이 ‘운동’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교육과정 운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교과 편성·운영을 체육고등학교의 ‘문제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P교사의 심층면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체육고등학교에서의 전문교과 편성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작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는 실제 전문교과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육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전문교과에 41.2%(80.53/195.18*100)를 할애하고 있다(국민준, 홍애령, 2024). 40%에 가까운 교육과정 부분을 단순하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단순 훈련’⁷⁾으로만 활용하는 것과 최초 전문교과 개발 원리에 충실할 수 있는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이에 ‘스포츠 개론’, ‘체육 지도법’, ‘스포츠 경기 분석’ 등과 같이 이론 기반의 전문교과와 함께 ‘스포츠 경기 체력’, ‘스포츠 경기 실습’ 등과 같은 실기 기반의 전문교과에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⁷⁾.

두 번째로 논의할 수 있는 점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교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체육고등학교의 특수학 맥락을 고려하면 내실 있는 전문교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다만 태생적으로 전문교과가 지니고 있는 양날의 검(경기력 향상에 집중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교과학습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과 같은 성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도출된 바와 같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은 결국 학생선수의 진로 확장(예: 스포츠심리 전문가)에 기여할 수 있다(윤기준, 전세명, 2020). 단위학교 운영의 특성을 고려

6) 여기서의 학습은 진로를 위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넓은 의미의 배움이 아니다. 수학능력시험 준비, 내신 성적 관리, 각 교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명제적 지식 습득의 의미를 지닌 ‘교과학습’에 가깝다.
7) 논의의 초점화를 위해 (체육)교사의 실질적인 지도 없이 코치(전문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운동부지도자)가 전담하여 수업을 단순한 훈련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파행적인 모습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해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거의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점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⁸⁾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기 기반의 프로그램(예: 스포츠 체력 향상을 위한 개인 훈련 설계의 이론과 실제)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우수사례로 제시된 국외스포츠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윤기준, 전세명, 2020), 스포츠 다큐멘터리 기획·제작 (윤기준 등, 2023),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책 읽는 날 지정 및 지역 독서관과의 연계 구축(서장원, 2014) 등과 같이 단위학교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선수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구결과 2의 C학생과 같이 학생선수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의 폭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접할 때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정문현, 진윤수, 박만석, 2017).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수도권 A체육고등학교 소속 학생선수(4명)와 교사(5명)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대회 참여보다 학업성적을 우선시하는 학생선수’, ‘학생선수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만족도’, ‘체육고등학교 맥락에서 비롯된 어려움 및 제한점’이라는 세 가지 중심현상을 도출했다. 이상의 세 가지 중심현상을 바탕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의 체육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체육고등학교 맥락을 반영한 학생선수 학습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 체육고등학교를 포함한 학생선수의 학습 지원 및 학업-운동 병행 관련 후속 연구 수행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의 전반적인 학습성취도 수준과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학생선수의 지속적인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8) 여기서의 학습과 본 절의 제목에 포함된 학습은 각주 1의 ‘교과학습’과 달리 학생선수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학습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까지 파악된 자료로는 단순하게 단위학교 내에서의 성적 분포 등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선수, 해당 운동부, 소속 교사, 단위학교, 학교 밖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학생선수 학습 및 진로 지원을 위해서는 단위학교 만으로는 부족하다. e-school과 같이 효율적인 시스템 역시 교사의 세밀한 관심과 지도가 뒷받침 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임주한, 류민정, 2021). 아쉽게도 체육회, 교육청 관계자, 지역 등의 여러 가지 교육주체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제기되었으나(조순묵, 박숙자, 2021; 최효근, 2020) 구체적인 모습을 제안하는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다. 향후 다양한 관계 기관의 역할 및 담당해야 할 세부 과제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4. 9. 13. ※ 논문 수정일: 2024. 11. 20. ※ 게재 확정일 : 2024. 11. 29.

〈참고문헌〉

- 국민준, 홍애령(2024). 전국 체육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선수 수급 및 진로·진학 현황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1(2), 41-64.
- 권형일, 구태연, 류겨레(2018). 축구 주말리그 도입 이후의 고등학교 학생선수 학습권 현황.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AJPSS)**, 6(1), 21-32.
- 김동현, 윤양진(2010).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4), 57-81.
- 김은영, 임한열(2018).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학생선수 e-School 정책 분석과 발전 방향 탐색. **한국교육**, 45(4), 201-225.
- 류태호, 이주욱(2004).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한국체육학회지**, 43(4), 271-282.
- 명왕성(2020).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지식 담론에 관한 내용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9(5), 221-239.
- 박상현, 신선운(2017). 중도탈락 대학 학생선수의 사회연결망 형성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56(6), 95-115.
- 박원길, 임수원(2003).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학교생활적응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등교육연구**, 51(2), 523-545.
- 서장원(2014). 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위한 독서 교육 사례연구: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독서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3), 33-52.
- 선혁규, 백종수(2019). 학생선수 학습권을 위한 주말리그제도 운영 성과와 과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3(4), 131-145.
- 윤기준, 정현우, 정현수, 홍애령, 국민준, 박진아, 정민훈(202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중·고등학교 설립타당성 2차 검토 및 운영 방안 연구. 인천: 인천대학교.
- 윤기준, 전세명(2020).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 학업-운동 병행 탐색 사례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4(2), 127-145.
- 이용식, 박진경, 정영린, 김원경, 장지훈, 최만식(2016).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 정책불응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4(2), 13-36.
- 이준길, 김병선(2022). 체육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의 영어 학습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문화와 융합**, 44(11), 929-939.
- 임주한, 류민정(2021). e-school 학습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관리가 학생선수의 학습내적동기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60(1), 37-50.
- 임한열, 김은영, 윤기준(2023). 학생선수 e-School의 효과적 운영 양상 탐색.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7(1), 85-103.
- 정문현, 진운수, 박만석(2017). 대전체육중·고등학교의 실태와 발전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6(1), 427-440.
- 조순묵, 박숙자(2021). 학교운동부 운영실태와 운영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109-125.
- 최윤석, 박재우(2024). 학습권과 운동권 사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정책의 실태와 과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7(3), 53-74.
- 최효근(2020).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의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경험과 그 의미. **한국초등교육**, 31(4), 239-252.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Abstract〉

Exploring aspects of Student-Athletes' learning in a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Park, Jina¹, Yoon, Keejoon²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aspect of students-athletes in a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Four student-athletes and five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the student-athletes and teachers were undertaken for data collection.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through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Three central phenomena emerged: (i) students-athletes placed the importance on study rather than participating sport events, (ii) individual learning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 of managing students-athletes' academy record and they did not fully satisfied with curriculum and learning programs in the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and (iii) there wer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for supporting student-athletes' learning that wer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The necessity of changing view the nature of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and directions and plans to support student-athletes in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s were discussed.

Keywords : combination of study and exercise, right for learning, elite athletes, elite sport, school sport teams

1. Graduate student, Incheon University, jinaaa9876@gmail.com (Lead Author)

2. Professor, Incheon University, k.yoon@inu.ac.kr (Corresponding Author)